

虛 와 實

사람을 속이도 방법은 천태만상이다. 어떤 주간지에 실린 사기 백태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남을 속이는 일도 별의별 수법이 다 있구나 하고 놀랐다. 불신 풍조를 몰아내자는 구호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오히려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말아야만 하겠다. 어떤 사회 학자가 사회학의 기능을 규정하는데, 사회학은 모든 눈가림이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벗겨 버리고 믿을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말라고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 사회 안에 사는 사람은 불신 추방보다 不信의 技術을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상대방이 믿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편에서는 믿을만한 말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말도 있다.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외부의 압력 때문에 말하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말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때문이다.

南과 北 사이에 오고가는 말을 들을 때 어디까지가 정치적 접촉의 <虛>이며 어디까지가 <實>인지 분명치 않다. 모든 국가간의 외교나 접촉에는 虛와 實이 뒤범벅이 되게 마련이다. 요즘 외국에는 이러한 외교의 虛와 實을 담은 문서를 폭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여유있는 외교 문서의 폭로가 아니라, 민족의 生과 死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이 믿을 것은 믿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은 믿지 않도록 不信의 技術을 터득하게 되려면 남과 북의 접촉에서 벌어지는 虛와 實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만 할

것 같다.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북쪽의 虛를 찌르기 위해서 우리의 實을 보여야 하며 우리의 虛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에게 實을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 놓고 믿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과 문제를 국민과 함께 짚어진다는 민주적인 태도가 지도자에게서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민주적인 힘이 생겨질 것이다. 이 힘만이 우리를 北과 마주 서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